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미 소비자 심리, 5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

[미국 금융]

- WSJ: 금값, 온스당 5천불 근접

[날씨 예보]

- Bloomberg: 동북부 등 주말 폭풍...폭설과 결빙, 정전 우려
- CNBC: 항공기 1천편 이상 취소 사태

[물류]

- WSJ: 연방 정부, 미국내 외국인 트럭 운전사들 대폭 단속

[미중 무역]

- WSJ: 중국 정부, “테크 회사들에 엔비디아 H200 칩 주문 준비하라”
- CNBC: 엔비디아 CEO, 월요일 중국 방문

[글로벌 경제]

- YahooFinance: 다보스 참석 경제 지도자들 “트럼프 압력에도 불구하고, 글로벌 성장 견조”

[에너지]

- WSJ: 천연가스 가격 급등...북극 한파 여파 우려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Bloomberg: 미 기업 CEO들, 글로벌 긴장 고조로 소비자 우려에 신경쓴다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Consumer Sentiment Reaches Five-Month High in Broad Gai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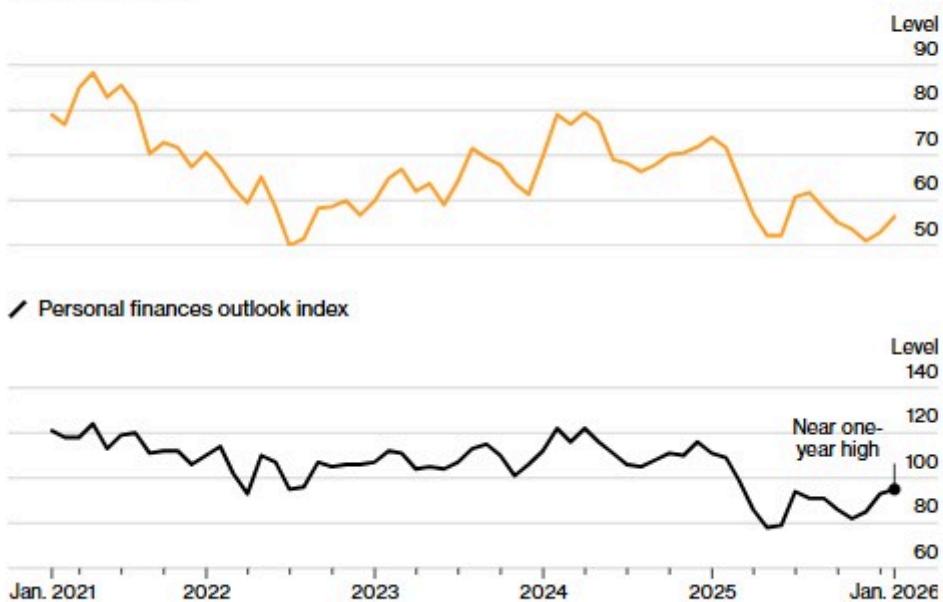
미 소비자 심리, 5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

- 1월 미 소비자 심리가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. 미국인들의 경제와 자신들의 재정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.
- 소비 심리 지수는 전월에 비해 3.5 포인트 상승한 56.4를 기록해 미시간대 예비치 보다 높았다.
- 월간 기준으로 이번 소비자 심리는 지난해 6월 이래 가장 높았으며 소득, 나이, 교육 수준, 정치적인 성향과 관련 없이 전반적인 부문에서 상승했다.
- 소비자들은 내년에 물가가 연율로 4%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. 이는 지난해 1월 예상치 이래 가장 낮았다.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는 물가가 연 3.3%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.

US Consumers More Upbeat at Start of the Year

Sentiment reaches five-month high, aided by optimism about personal finances

↗ Sentiment index



Source: University of Michiga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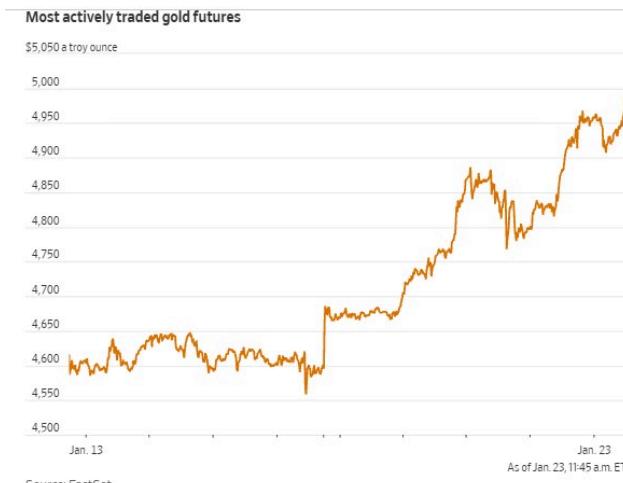
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Gold Prices Spike Toward \$5,000 an Ounce

금값, 온스당 5천불 근접

- 금값이 5천달러에 근접하고 있다. 한때 금 선물이 장중에 온스당 \$4,970까지 오르다가 현재 금요일 12: 05pm 현재 1% 이상 상승한 \$4,981.50에서 거래중이다.
- 이번 주만 해도 금값이 대략 7% 상승했는데 트럼프의 그린랜드 발언과 관련된 이슈 등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었다. 은 선물은 오히려 최근 상승폭이 컸는데 온스당 거의 1백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.
- 또한 낮은 이자율로 국채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, 금이 내재적인 이자율은 없더라도 상승 여지가 커서 매력도가 있기 때문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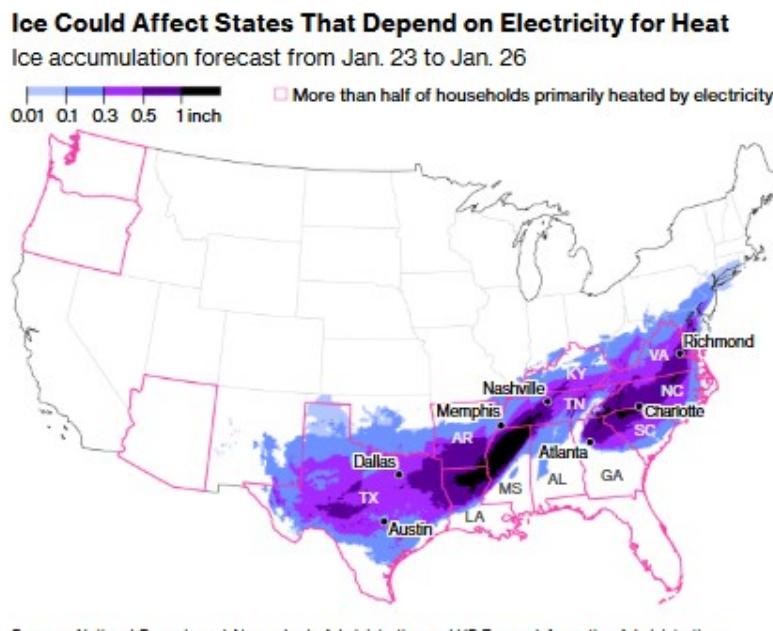
Source: FactSet

[날씨 예보]

Bloomberg: Sweeping US Winter Storm Threatens Blackouts and Snarled Travel

동북부 등 주말 폭풍...폭설과 결빙, 정전 우려

- 주말 폭풍이 남부 로키산맥에서 시작해 중부 아틀란타를 거쳐 동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수일 동안 발생해 정전과 사람들의 이동과 여행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.
- 관련 지역의 1억 7천만 명에게 여파를 주면서 눈과 비가 섞여 내리면서 얼음이 두껍게 쌓일 것으로 보인다.
- 이미 전기료와 가스비가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정전 사태로 난방도 끊길 수 있다는 것이다.

**CNBC: Airlines cancel hundreds of flights as massive winter storm sweeps across U.S.**

항공기 1천편 이상 취소 사태

- 이번 극심한 겨울 폭풍으로 오늘 금요일 1천3백편 이상의 항공 여행이 취소되고 있다.
- 이와 관련 아메리칸 항공, 델라, 유나이티드 항공 등 항공사들은 뉴멕시코에서 뉴욕등 각 공항에서의 여행객 항공편 변경, 취소 비용을 면제해 주고 있다.
- 이번 폭풍을 특징은 눈과 결빙, 강풍과 강추위를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.

[물류]

WSJ: Federal Crackdown Pulls Thousands of Foreign Truckers Off Roads 연방 정부, 미국내 외국인 트럭 운전사들 대폭 단속

- 연방정부는 도로 안정 강화를 목적으로 외국인 트럭 운전자들을 단속하고 있다. 수천 명이 실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.
- 구체적으로 연방 정부의 단속 방안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지가 없는 20만 명의 상업용 운전 면허증 소지자들의 97%가 자격이 잃게 된다.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단속을 일시 유예하고 있다.
-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주정부가 해당 17만개의 운전 라이선스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주정부에 지원금 1억 6천만 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.

[미중무역]

WSJ: China Tells Alibaba, Tech Firms to Prep Nvidia H200 Orders 중국 정부, “테크 회사들에 엔비디아 H200 칩 주문 준비하라”

- 중국 정부 관리들은 알리바바 등 미국의 대형 테크 회사들에게 엔비디아의 AI 칩 모델 H200 주문을 준비하라고 말했다. 이는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에 핵심적인 부품 수입의 공식적인 허가 단계에 왔다는 것을 말한다.
-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, 텐센트, ByteDance 등에 해당 모델의 구매를 위한 단계를 허용했으며 대신에 승인 조건으로 중국내 칩의 일정 규모 구매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.
- 중국 정보는 올해 1분기에 해당 수입을 허가하는 대신에 이 AI 모델은 민감한 중국 정부 기관이나 핵심 인프라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. 이번 주문 허가로 엔비디아는 중요한 수출 성과가 예상된다.

CNBC: Nvidia's Huang to visit China as AI chip sales stall 엔비디아 CEO, 월요일 중국 방문

- 엔비디아와 CEO인 젠슨 황이 다음주 월요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.
- 엔비디아는 미중 갈등 속에 양국으로부터 자사의 AI 판매에 대해 제지를 받아왔다.
- 특히 바로 최근까지는 중국 정부의 엔비디아 제품의 구매를 허용하지 않았다.
-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에서 적어도 전체 매출의 5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졌었다.
- 젠슨 황은 다음주 월요일 중국내 엔비디아 미팅에 참석하고 중국 바이어들을 만날 예정이다. 그는 지난해에 중국의 신년을 비롯해 총 3차례 중국을 방문했었다.

[글로벌 경제]

YahooFinance: Economic leaders at Davos say global growth is resilient despite Trump disruption

다보스 참석 경제 지도자들 “트럼프 압력에도 불구하고, 글로벌 성장 견조”

- 스위스 다보스 World Economic Forum에 참석 중인 글로벌 경제 지도자들은 각 정부와 기업체들에게 최근의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으로 인한 갈등에 신경쓰기보다는 국제 협력이 절실한 현재 시점에서 경제 성장과 불평등 극복에 애써 줄 것을 촉구했다.
- 다보스에 참석하고 있는 유럽 은행 총재와 WTO 사무총장 등은 글로벌 경제는 예상과는 달리 견조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. 그러나 그들은 정부들의 막대한 부채들과 불평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.
- IMF 총재는 “IMF는 올해 글로벌 성장률을 3.3%로 상향 조정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”라고 말했다.

[에너지]

WSJ: Natural-Gas Prices Soar as U.S. Braces for Arctic Blast

천연가스 가격 급등...북극 한파 여파 우려

- 수년만에 가장 출고 폭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이번주 들어서 63% 상승했다. 이번 한파는 서부 텍사스 사막을 비롯해 오대호 까지 광대한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.
- 지난 2021년에는 텍사스에 겨울 폭풍으로 수백만명이 수일간 정전 사태를 겼었다.
- 한파로 인해 텍사스 오일 가스 유전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연방 에너지국은 전력망 운영자들에게 예비 발전기 가동 준비 등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라고 요구했다.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Bloomberg: CEOs Wary of a Jittery US Consumer as Global Tensions Intensify

미 기업 CEO들, 글로벌 긴장 고조로 소비자 우려에 신경쓴다

- 기업체들이 글로벌 긴장에 우려하고 있다. 항공업계의 경우 델타, 유나이티드 항공등 항공사들은 지정학적인 불확실성과 글로벌 긴장으로 여행 수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리스크를 경고했다.
- 산업재의 경우 3M Co., Fastenal Co., JB Hunt Transport Services 등을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는데 관련 거시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.
- CEO들은 정책적인 불확실성과 글로벌 긴장으로 인해 향수 사업 목표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부의 경우 인플레와 무역 불확실성으로

인한 비즈니스 환경에 우려하고 있다.

기사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